

마애불 진실게임, 조계종·문화재청 공방

조계종, 문화재청 해명에 정면 반박... 마지막 요구 전달 "진정성 보여라"



최광식 문화재청장 문화부장 호탄 스님

낙단보 마애불 훼손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계종은 2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청의 해명에 커다란 실망과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하루 전 열린 문화재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재청은 우리가 가리키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사태의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선 10일 조계종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애불의 존재를 8월에 인지하고 10월에 발표 >4대강 사업 강행을 위한 의도적 훼손 >제2 마애불 제보 은폐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16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조계종이 제기한 의혹을 인정할 수 없고 향후 철저한 조사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제2 마애불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해 발견된 마애불 주변에 통합관리센터 전력제어동과 문화관을 설치한

다고 밝혀 조계종을 자극했다.

현재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낙단보 마애불의 발견시점, 훼손 경위, 제2 마애불 가능성 등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의 입장 표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4대강 주변 문화재 제조사와 제2마애불 발굴을 위한 방안, 문화관·전력관리동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이번 요구에 따른 문화재청의 태도를 확인한 뒤 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발견시점= 지난 해 마애불 발견될 당시 문화재청은 10월 6일에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단의 현장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이미 의성군청이 마애불의 존재를 인지하고 현장 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계종은 2010년 12월부터 낙단보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주민 탐문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를 놓고 조계종은 국민과 종교지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마애불 훼손을 방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8월 4일 의성군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제보 내용만으로 마애불의 존재를 판단하기 어렵고, 제보 지점에 4대강 공사 개발 계획이 없어 의성군이 문화재청 보고없이 자체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발견 지점에 대한 공사가 지난해 10월 시작됐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

된 일을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문화재 보호가 우선인 문화재청이 4대강 사업 공사를 변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의적 훼손= 지난해 마애불 발견 이후 낙단보 통합관리센터 설계 변경, 마애불 정비계획 수립이 추진됐다. 하지만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해 8월 이미 주민들의 제보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10월이 지나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문화재청과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 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4대강 공사에서 문화재의 훼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계종의 마애불 고의적 훼손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은 작업 공정과 경위를 살펴볼 때 의도적 훼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당초 낙단보 통합관리센터 조성을 위해 용벽 시공 중 천공작업 과정에서 마애불이 발견됐다. 용벽 시공을 위해 토석을 모두 제거할 경우 도로 붕괴 위험이 있어 지반확인을 드릴로 천공했다. 결과적으로 4번째 천공작업 중 문화재가 발견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해 마애불 발견에 앞서 제기된 주민들의 제보 지점은 정작 마애불이 발견된 지점과 5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보를 목살해 훼손을 방임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2 마애불 가능성=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제2 마애불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에도 발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추가 존재 가능성 자체를 은폐해왔다는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구나 문화재청은 지난 해 발굴된 마애불 주변에 통합관리센터 전력제어동과 문화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은 추가 발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지난 해 발견된 마애불처럼 또 다시 훼손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제2 마애불 발굴을 위한 후속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계종은 "상식적인 사실조사 간과하는 문화재청의 해명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주민들의 증언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추가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난해 마애불이 발견되면서 주변에 굴착을 실시했으나 추가 마애불 존재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도로차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을 어려움을 제기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법정 스님 열반 1주기 특별칼럼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하지 않는 것



가까이 인정을 하는 것보다 정말 이 시대의 민중들의 가슴에 남아서, 그들이 "고마운 존재"였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까? 국가가 아니라 민중이 인정해주는 것을 더 기뻐해주는 정신적 지도자, 난 그런 사람이 늘 아쉬웠다.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부하면서 정말로 민중들의 철학자가 되었던 사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었다.

법정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그 생각이 다시 한 번 났다. 남기지 말라하면서 '말뭉'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는 말씀은 솔직히 충격적이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마치 그림의 가치가 화가가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공금이 중단된 재화는 희귀재의 품목에 올라가 일반 상품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게 된다. 소유하지 말라고 말 한 책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진귀한 경험이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또 의혹 해소 차원에서 추가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도로차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을 어려움을 제기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경제학자로서 사람들에게 '무소유' 같은 고귀한 가치를 아직은 말해보지 못했다. 그런 높은 수준의 정신단계에 도달해 보지 못했다. 내가 끝까지 얘기를 밀고 가서 하는 얘기가, "살이라는 건 입에 세끼

밥 들어가면 된다"는 수준의 얘기 정도이다. 아침에 눈을 떠 자신의 입에 세 끼 밥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 입에도 세 끼 밥이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나는 '가늘고 길게' 라고 표현한다. 가늘게 살면, 살이 길어진다. 많은 사람은 '굵고 길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굵고 짧게' 살게 된다.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렇게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싶지 않고 자치나 문화적 가치 같은 것을 높게 치는 스위스나 노르웨이 혹은 스웨덴 같은 나라가 실제로는 국민소득 6만불을 넘어간 나라들이라는 점이다. 경제 근본주의의 클라이막스 시절에 생각해보는 아이러니다.

원래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도, 결혼한 배우자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 이런 법정 스님 외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근본적으로 고민해보지 못한 가치이다.

도서관이나 공원, 공공 체육시설처럼 공유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절반 정도가 이런 공유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회, 그 경제학자로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지금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경제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에 98%의 아동이 사교육을 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소유의 욕심이 자식으로 투사되면, 우리는 지옥을 만들게 된다. 그들을 위한 공공재는? 아이들을 뛰어놀게 해 줄 골목을 잃어버린 지금, 소유하고자 하나 결국 손에 잡히는 것 없는 너무 허망한 시대이다.

우수훈 (21 연구소 소장)

이나는 기자의 지금 부루나에서는

이계진 前 의원, 김상사 출입 막을까 말까

28일 법정 스님

추모법회 앞두고 의견 분분

조계종은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중무행정 세부지침'을 통해 각종 불교행사에 정부 관계자 및 정치인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2월 28일 오전 11시 김상사에서는 법정 스님의 제1주기 추모법회가 봉행된다. 한나라당 이계진 前 의원은 법정 스님이 설립한 맑고향기롭게 이사이다. 페이스북 부루나에서는 이계진 前 의원

의 법정 스님 추모법회 참석 여부에 대한 법석이 열렸다.

A씨는 "이계진 前 의원은 스스로 불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플레이를 해 불교계를 곤란케 한다면 그분 스스로가 법정 스님 추모법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불자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그들이 진정한 불자라면 존경하는 법정 스님 추모법회가 정치적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스님을 추모하는 방법은 법회에 참석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씨는 "내가 만약 이계진 前 의원이라면 의견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고 범죄관계자들은 만나지도 않고 대중 속에서 한 개인으로 스님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진 前 의원이 추모법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B씨는 "이 前 의원의 불자로서 법정 스님과의 인연은 정계 진출보다 먼저 이뤄졌다. 이계진 前 의원은 맑고 향기롭게 이사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한 스님은 "언제부터 사찰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았는지 궁금하다. 정치적

혹은 불순한 의도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출입은 당연히 막지 말아야 한다"며 "김상사에서는 당연히 이계진 前 의원을 맑고향기롭게 이사로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사 관계자는 "조계종이 시달린 방침에 따라 한나라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의 출입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계진 前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정 스님과 인연을 맺은 특수한 경우라 방침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책으로 이어지는 무소유 신드롬

법정 스님 가르침 담은 책

속속 출간

"그동안 풀어놓은 말뭉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달라"는 스님의 유언이 세상에 공개되자 법정 스님의 책들은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 스님이 직접 쓴 책들을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지만,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써 내려간 글들이 출판계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법정 기행》은 스님의 발자취가 있던 11곳의 법정 순례길을 따라 나를 찾아가는 마음 치유 기행서다. 쌍계사,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불일암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기행 길을 동시에 만날 수 있다.

《무소유 잠언집》의 편저자 김세중은 부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고자 했던 법정 스님의 행동과 말씀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

법정기행 | 이시현 저음 | 마더북스 | 1만4800원
무소유 잠언집 | 김세중 편저 | 휘닉스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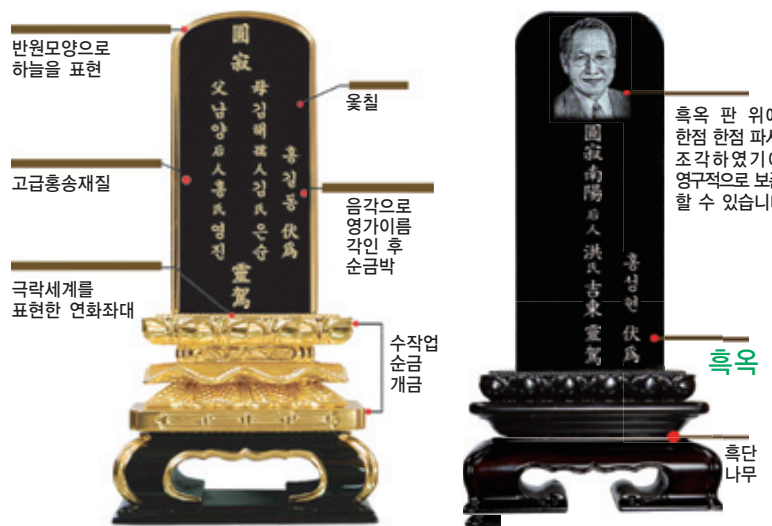
황금영구위패는?

※ 디자인특허 ※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구위패만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치 전경>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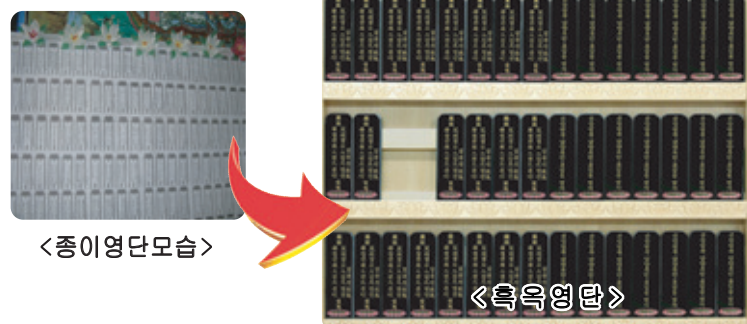
흑옥위패단은?

※ 디자인특허 ※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설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종이영단 모습>

<흑옥영단>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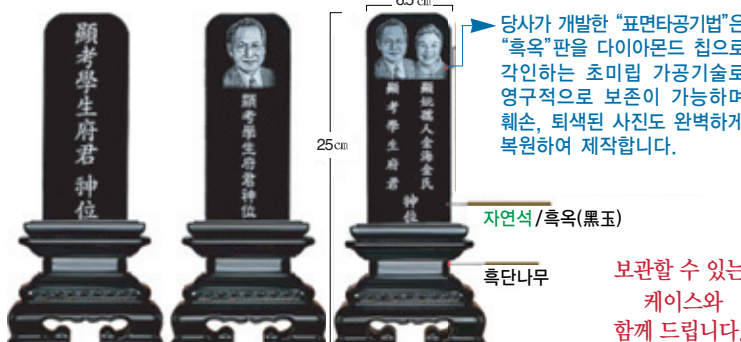
흑옥 제사용 위패는?

※ 디자인특허 ※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당사가 개발한 "표면타공기법"은 흑옥 판을 다이아몬드 칩으로 각인하는 초미립 가공기술로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며, 훼손, 퇴색된 사진도 완벽하게 복원하여 제작합니다.

흑단나무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함께 드립니다.

상담전화: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02) 921-9650

본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 dyart@daum.net